

좌담:차세대 포교

부처님 오신 날 특집

불교적 가치 심어 새시대 주역 양성

21세기가 5년 앞으로 다가왔다. 새시대를 대비해 불교계의 움직임 또한 활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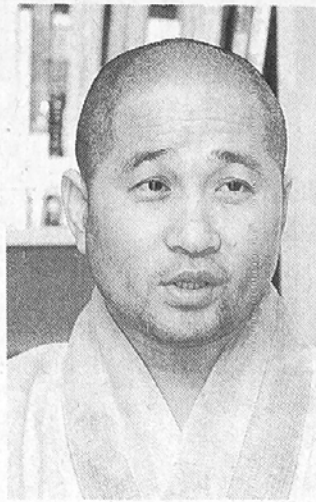
어느 때보다 미래불교 증흥의 초석이 될 청소년 포교가 요구되고 있다. 차세대 포교는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청소년 포교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차세대포교의 문제와 방향을 물어본다. <편집자 주>

이용교박사:제가 먼저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청소년 문화 현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소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근로청소년들이 관심의 주요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청소년들에 대한 심성교육과 놀이문화, 그리고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차세대 포교와 관련하여 청소년

대 포교를 논하는 것은 서구문화를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장점을 취하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불교철학의 사상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입시지옥, 가정윤리나 사회윤리의 부재, 인신매매, 마약 등 청소년들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종교계가 앞장 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모델을 제공하는 과거 우리의 문화사 속에서 청소년 문화의 원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점점 차원이 아닌 기초를 다지는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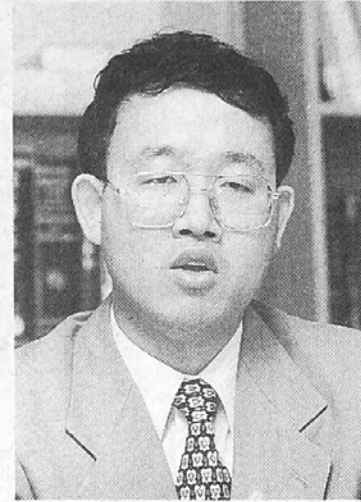
영담스님:오늘 논의된 것처럼 청소년 문화가 지나치게 서구지향적이고,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교육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학생을 가르치고 배출하는 학교제도가 서구적 문화를 소개하는 곳이 되었지요. 그곳에서 양성된



영담 스님



선진규 법사



이용교 박사

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간성, 교우관계 등 인격체로 성장해 가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공동체문화이거든요.

선진규법사:저는 청소년 문화의 사상적 바탕을 불교의 연기법에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연기법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연기란 존재론적으로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철저하게 인과응보사상을 고취시켜 강한 책임 의식을 양양시키고 혼돈의 문화에서 탈피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불성을 지닌 고귀한 존재임을 자각케 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불교적 인생관을 정립시켜 주면 청소년의 인격에 적극적 활동력과 생명력을 불어넣어 개방화시대를 맞아 적응력있는 인간이 되리라 봅니다.

절마다 상담실 운영

이용교박사:청소년과 밀접해지기 위해 불교계는 각 사찰마다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찰을 놀이마당으로 개방하여 친구도 사귀고 즐겁게 놀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근로자·장애인·학생 등 각각에 알맞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찰에 개설하는 것도 필요하며, 청소년 대상의 문서 포교 정보제공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발더 나가 국내의 성지순례, 청소년국제교류, 외국불교

사찰개방 청소년 사회교육으로 활용 불자화보다 대승적 인성교육

문화의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면 현재의 청소년 문화는 과거의 청소년 문화 즉 기성세대의 문화적 배경이 유교나 불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오늘날의 청소년 문화는 서구 중심적인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분석됩니다.

기성인간의 정서와 사고가 유교적 윤리의 기본인 3경5륜을 기반으로 하는 충·효·장유유서·가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면 오늘날의 청소년은 개인적·자기중심적인 사고 형태를 지향하고 있지요. 따라서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거부감을 표시하고, 흑백논리에 입각한 서구 모방적 문화 형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신세대 가치관 형성

선진규법사:서구문화가 청소년 문화에 접목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청소년 문화의 근본이 유교나 불교적 정서를 깔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지요. 저는 청소년 문화가 일장일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취적이고 활발한 반면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면도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의 이면에는 서구문화의 영향, 즉 기독교 문화와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차세

대 포교를 논하는 것은 서구문화를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장점을 취하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불교철학의 사상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입시지옥, 가정윤리나 사회윤리의 부재, 인신매매, 마약 등 청소년들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종교계가 앞장 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모델을 제공하는 과거 우리의 문화사 속에서 청소년 문화의 원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점점 차원이 아닌 기초를 다지는 일입니다. 영담스님:오늘 논의된 것처럼 청소년 문화가 지나치게 서구지향적이고,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교육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학생을 가르치고 배출하는 학교제도가 서구적 문화를 소개하는 곳이 되었지요. 그곳에서 양성된

명의 존엄과 더불어 삶의 미덕을 가르치며, 존재의 본질과 현상 속에서 바람직한 인간의 생활 양태가 무엇인가를 탐구합니다. 여기에 경쟁에서 아끼되는 자기중심적 사고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가치와 궁극적 삶의 질서를 추구할 뿐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교육의 교육 자체가 인성교육 보다는 입시교육 위주지요. 당연히 경쟁심을 유발하게 되지요. 자기 중심적이고 불신감이 팽배할 수 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는 불교가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믿고, 화합하고 사랑하고 남을 위한 줄 아는 마음, 더불어 살려는 마음의 양양 등 불교계가 할 일이 많습니. 또한 청소년들의 심성을 변화시키는 일이 정토건설의 밑거름이라 생각하면 종단과 스님들의 각성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선진규법사:교육문제에 대해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서구식 교육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전 환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점에선 일선 교육자들이 각성하고 있는 듯 해 위안은 됩니다. 그렇다면 교육의 방식과 내용을 서양이나 강원에 서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서당은 충·효·예와 사회윤리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덕성양성에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강원은 생

참석자

영담 스님
<부처선학사 주지>
선진규 법사
<봉화산 청소년수련원장>
이용교 박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교육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도적으로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불교적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를 운영 하는 것에서부터 인재를 양성하는 일 등이 중점 사항이겠지요. 사회 교육 차원에서선 사찰을 개방하여

인과응보사상 고취해 책임의식 갖게 지도자 배출 시급한 과제

무한 경쟁에 돌입하는 그런 시대로 봅니다. 이것은 국내에 한정된 사안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시대에 불교가 청소년 포교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가가 주안점입니다. 종교주의적 노파심인지 모르지만 타종교인들은 벌써 준비를 완료해 놓고 움직이고 있는데 불교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몇몇 열성적인 분이 있지만 세부적이고 종단 전체의 입장에 선 대

장학 활동은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력과 지속성이란 측면에서 아직 결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봅니다. 선진규법사:이제 불교도 타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생각하고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덕성함양 교육 필요

영담스님:그렇습니다. 비판적으로 말할 수만 없는 것이 청소년 포교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직 전통의 근간이 남아 있으므로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특히 스님들의 의식을 어떻게 전환 시키는가에 승계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종단적 차원에서 대책기구나 연구소를 개설하는 것도 적극적인 방법의 하나라 봅니다.

이용교박사:청소년의 비행문제를 연구하는 측면과 문화를 연구하는 측면은 다릅니다. 비행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은 나쁜 것은 고쳐야 한다고 보는데 반해 청소년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보자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선도개념은 아닙니다. 개개인들이 자신을 드러내 놓고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입장이고 어떻게 하면 공동체 속에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주

청소년과 연합 축제등도 좋겠지요. 선진규법사:조금만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교계는 몇 가지 사안에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선 청소년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인된 2천여 명의 청소년 지도자들의 약 80% 정도가 기독교 성향입니다. 불교는 교사불자회, 대학생불자회, 청소년 불자회 등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 교육에 나서야 합니다.

셋째는 청소년 지도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공인된 지도자들의 구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중앙에서 지방까지 조직적인 체계가 필요하니까. 넷째는 역시 프로그램의 개발입니다. 신바람 나는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찰의 개방, 불교도의 의식개혁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영담스님:사찰개방과 스님들의 의식개혁, 청소년 포교의 전문기구가 필요하고, 청소년 지도자 양성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마을 놓고 차세대 포교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종단의 몫이 됩니다. 모쪼록 조국통일과 개방화시대에 필요한 인성을 함양시키는데 전통도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리=한명우 기자>

국내외 성지순례·국제교류 활성화로 공동체속에서 自我 찾아줘야

로 박학을 이용해 임간(林間)학교를 개설하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존경을 가르쳤더니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불교신자를 늘리기 위해 차세대 포교를 한다는 소승적 입장 보다는 민족의 장래와 개방화시대에 적합한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불교적 가치를 청소년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는 교육의 잘못을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

육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도적으로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불교적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를 운영 하는 것에서부터 인재를 양성하는 일 등이 중점 사항이겠지요. 사회 교육 차원에서선 사찰을 개방하여

책이 마련한답니다. 이용교박사:현재 한국의 인구 분포는 불교대 기독교와 천주교를 합친 숫자가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사회를 주도하는 그들은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람 초·중·고·대학의 설립자나 병원 운영권자를 대부분이 기독교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란 구호가 실제 피부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통계상 파악되지 않는 불교의 사회복지나

뽕 부처님 오신날, 온누리에 부처님 광명의 빛 가득하게 하소서 축

<p>부산불교신도회</p> <p>회장 류진수 상임부회장 임채수 사무국장 우학수</p> <p>(051)464-2020</p>	<p>부산자유시장번영회</p> <p>회장 심용보</p> <p>(051)633-8785</p>	<p>인삼당약국</p> <p>대표약사 박정환</p> <p>부산시 동구 범일동 자유시장 3층 (051)632-0023</p>	<p>부산불교거사림</p> <p>회장 서건남 부회장 엄영진</p> <p>(051)805-1280</p>	<p>부산불교교육대학</p> <p>학장 이하우 이사장 박주천</p> <p>(051)818-8659</p>
<p>선사 선행회</p> <p>회장 이숙향 회원일동</p> <p>부산시 남구 대연5동 294 (051)627-4985</p>	<p>부산불교고등학생지도연합회</p> <p>회장 이종관 총무 김원수</p> <p>(051)464-2020</p>	<p>염불암</p> <p>주지 성수 신도일동</p> <p>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 17 (0343)71-2300, 3680</p>	<p>부산불교녹야회</p> <p>회장 허건구 총무정은택</p> <p>(051)814-6687</p>	<p>부산불교신용협동조합</p> <p>이사장 사상호</p> <p>(051)633-9120</p>
			<p>지리산 철굴암(구용회사)</p> <p>주지 동과(김상우) 신도일동</p> <p>경남 하동군 화계면 대성리 1620 (0595)83-6513</p>	<p>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양로원 • 노인문제연구소 • 군포 광명의원 • 서울광명의원 • 청주광명의원 • 대전광명의원 <p>이사장 김각현 외 임직원 및 후원회원 일동 (02)203-3677, (0335)34-3677</p>